

21세기를 선도해 갈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들이 정보통신불자회(회장 윤창권·명신 하이넷 대표)를 창립하고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빠르고 폭 넓은 불법 홍보와 보살행 실천에 나섰다.

정보통신불자회는 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해인

정사 주지 수진스님, 강산대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주홍식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을 비롯한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법회를 봉행했다.

# 정보화시대 포교침범 다짐

부산 정보통신불자회 창립...회원 160명

장학사업·사찰후원...전국조직도 추진



정보통신불자회는 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정보사회에 걸맞는 적극적인 수행과 실천행을 다짐했다.

정보통신 불자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품에서 정진하는 데 뜻을 모으고 몇 가지 사업 계획을 다부지게 세워두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회원의 수행과 정진, 매일 첫째주 월요일을 법회 일로 정하고 스님이나 불교전문 강사의 초청 법회나 강연을 갖는다. 12월 첫째 주에는 내원정사 정전 스님의 법문을 요청해 놓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장학사업과 행편 어려운 사찰, 스님들에게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부산을 모태로 전국 광역 지역 단체별 정보통신불자회 창립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자

## 게시판

- 알림**
  - ▲인터넷 무료 정보센터 개설=한울종합사회복지관은 13일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소의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터'를 개설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031)716-4215
  - ▲한글대장경 발행 일일치집=장애 인포교 단체인 조계사 원심회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한글대장경> 발행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치집을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생터 다방(조계사 맞은편 신한은행 지하)에서 개최한다. (02)720-4528
- 강좌**
  - ▲불교 기본교육=조계사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7시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주말반도 운영한다. (02)720-1390
  - ▲무료 사회교육=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가요교실, 단전호흡, 컴퓨터, 한지공예, 우리음악 등 무료 취미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385-1351
- 모집**
  - ▲내원정사 중무원은 부산 내원정사는 회계 및 관리직 여 중무원을 모집한다. 고졸 이상으로 불심이 돈독한 불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051)242-0691
  - ▲결연 사업 동참자=송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관내 무의탁 독거 어르신과 1대1 결연을 맺어 정서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 ▲대구 자비의 전화 후원자=대구 자비의 전화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무료급식을 후원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53)753-9734
  - ▲수지침서비스 자원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지침 서비스를 실시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65-3677
  - ▲가봉빈가 소년합창단=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은 가봉빈가 소년소녀 합창단 신입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이며 지원자는 합창단 지원서 1통을 12월 중순까지 제출한 후 오디션(자유곡 1곡)을 거쳐 선발된다. (031)245-7048

## 우리모임에선

### 은평구청 불심회 수계법회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10일 진관외동 삼천사에서 주지 성운스님을 모시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70여명이 계를 받고 참 불자가 되었다고 서언했다.

### 석불선양회 평화발원 법회



한국석불선양회는 5일 강원도 영월 일대 석불을 친견하는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순례법회에 참석한 50여명의 회원들은 사자산 법사사를 참배한 후 요선암 마애미륵존불전에서 종년농사 감사제 및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이어 안양 망해암 보명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며 불심을 다졌다.

### 대구북부경찰서 보리암 순례

대구 북부경찰서 법우회(회장 김우택)는 5일 남해 보리암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성지순례에는 4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불자연합 추계 성지순례법회

### KBS불자회 김용사 참배

KBS불교연구회(회장 박영석)는 대구방송총국, 인동방송국과 공동으로 지난 5일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0여명의 불자들은 이날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KBS 대하드라마 왕건 오픈 세트장과 김용사를 참배하며 신심을 키웠다. 이날 성지순례에는 KBS불교연구회 박영석 회장의 제안으로 MBC불교연구회와 SBS법우회원들이 동참, 처음으로 방송3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3사 불자들은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해 연합법회 및 합동성지순례를 각 방송사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고자 입을 모았다.

박영석 회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약간의 교류는 있었지만 방송 3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없었다"며 "앞으로 연합모임을 자주 가져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불자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opia.com)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도보순례단은 8일 대구 흥사단에서 낙동강수계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생명수, 낙동강 살리자" 한목소리

### 도보순례단 대구환경대회

### 위천공단반대 결의문 낭독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도보순례단(단장 수경스님)은 8일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대구시 달성군 사나면 강정마을에 순례 15일만에 도착했다.

16개 지류중 11개가 5등급 이하로 오염됐다는 금호강, 낙동강오염의 주범이라는 금호강과 낙동강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텐트를 친 순례단은 대구시내 흥사단에서 열린 낙동강수계 지역주민 간담회 및 낙동강도보순례단 대구환경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둘러싼 부산 시민과의 갈등 등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 더욱 관심을 모았다.

대구경실련 김명환 상임대표, 대구환경운동연합 김춘희 공동의장, 김석봉 법영남권법백지화투쟁위원장 등 지역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순례단이 그동안 낙동강을 끼고 걸어오며 조사한 환경오염 실태와 대구 시민단체들의 낙동강살리기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인 도보스님은 "대구지역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려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을 회복불가능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 "탐욕 버리면 강산 맑아져요"

### 인사이드 순례단장 수경스님

"낙동강을 따라 걸으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동체대바사상을 버리지 않게 노력합니다. 환경운동을 떠나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참 수행을 위한 제 발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낙동강 도보순례 15일째를 맞은 도보순례단장 수경스님은 고된 도보와 아열성화로 감기·몸살에 걸린 상황에서도 낙동강과 지리산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새벽 5시에 기상, 16명의 순례단원과 함께 하루 30km를 걷는 강행군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가는 국토의 산을소리를 느끼는 순례는 그야말로 '심청정 국토청정'을 몸으로 실현하는 수행의 과정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강물의 자정능력을 확인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수경스님은 환경운동이 결국 마음 닦는 수행과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한다.

"모든 국민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마음 공부를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친환경적으로 바뀔 것이고, 산하도 맑아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구=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저 도서출판 유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몸의 아픔이 천도가 안된 보이지 않는 영혼(靈魂)의 의식인 기(氣:에너지)체가 사람의 몸속에 시공을 초월해 들락거리므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초능력적 체험 이야기를 세계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세밀하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 원국학의 진인(眞人)인 장지상(張志祥) 교수로부터 기(氣)와 광(光), 음(音)의 이론으로 구성된 원국학(元極學)을 전공받았으며 원국학(元極學)연구와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 윤정주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儀式)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1~2초 내에 영가천도(靈駕薦度)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낸 독특한 초능력을 견비하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 주고 심신의 안정을 바르게 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기(氣:저자의 마음에너지)를 서울과 대구의 수련원에서 시공을 초월해 나누어주며 해결해 주고 있다.

영남일보, 매일신문 논평기사중에서 -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에서 미흡한 실력이지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영가천도에 관한 저자의 초능력 체험 이야기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신비하고 재미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서울, 대구 진여기 수련생일동 ·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영가천도 초능력 전수도 가능함